'겪은 일 쓰기' 수행평가의 준거와 실제

곽 재 용*

< 목 차 >

Ⅰ. 서론
Ⅱ. 교육과정에서 '겪은 일 쓰기'의 자리
Ⅲ. '겪은 일 쓰기' 평가준거의 마련
Ⅳ. 평가요소
Ⅴ. '겪은 일 쓰기'의 평가준거
Ⅵ. 수행평가 문항 작성의 실제
Ⅶ. 수행평가의 실제
Ⅷ. 결론

<요 약>

이 글은 초등학교 국어과 '겪은 일 쓰기'에 대한 수행평가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적용한 결과를 보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가 요소를 정해야 한다. '겪은 일 쓰기'의 경우 평가요소는 '내용', '개성', '구성', '어휘', '문장구조', '맞춤법·태도'로 여섯 가지이다. '내용'은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주제와 글감을 선택하는 것이다. '개성'은 글쓴이의 목소리가 담긴 솔직하게 썼느냐를 평가한다. '구성'은 문단을 나누고 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고, '어휘'는 사용한 어휘가 정확하고 풍부한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문장구조'는 문장의 다양성을, '맞춤법 및 태도'는 맞춤법이나 문장부호 등 어법에 맞게 쓴 글과 글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를 평가하는 일이다.

이런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단계화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4단계를 제시한다. 즉 1단계가 1~2학년, 2단계가 3~4학년, 3단계가 4학년, 4단계가 5~6학년 수준이 될 것이다. 이 평가준거에 맞추어 평가 결과가 나오면

* 진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학생들의 글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할 수 있다. 글쓰기 능력이 저학년이면서도 고학년의 수준에 이른 사람도 있을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1학년, 3학년, 5학년의 글을 소개하고 이를 평가준거에 의거에 평가해봤는데 학년의 차이보다는 개인의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Abstract>

A Rubric and Application of 'Essay' Performance Assessment in Korean Language

Kwak Jae Yo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vise the method of 'essay' performance assessment in elementary Korean subject and present the result of application.

First of all, to conduct performance assessment, it is necessary to decide elements of assessment. there is six elements of assessment 'content', 'individuality', 'construction' 'vocabulary', 'sentence structure', 'orthography · attitude' in essay writing. 'Content' that is most important factor of writing means to select subject and material for essay. 'Individuality' is to evaluate tone of writer is reflected in essay. 'Construction' is to evaluate writer devide paragraphs properly and connect it smoothly. 'Vocabulary' is assess the richness and accuracy of vocabulary used in essay. 'Sentence structure' is to evaluate diversity of sentence. Finally 'orthography · attitude' is to evaluate the essay is fit to grammar i.e. orthography, mark of sentence and is to test if student participates in writing actively.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It is possible to establish several grades on the basis of these elements of assessment. This article presents 4 grades. First grade may be correspond to 1~2 school year, second is to 3~4 school year, third grade is to 4 school year, and fourth grade is to 5~6 school year. If it comes to result according to rubric it is able to test the grade of student. While a certain student is the lower school year he/she can reach the higher grade in writing and visa verse. This article introduce the essay of 1,3,5 school year and evaluate it on the basis of rubric of assessment. As the result it is proven that the difference of individual is more remarkable than that of school year.

Ⅰ. 서 론

이 글은 초등학교 국어과 '겪은 일 쓰기'에 대한 수행평가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적용한 결과를 보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행평가[1]는 초·중등 학교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나 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수행평가의 취지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열린 교육이 초창기의 높은 관심에 비해 지금은 급격히 퇴조하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수행평가라는 평가의 방법이 표준화 검사나 지필평가의 대안으로서 나와 그 취지나 목적, 방법에서 전통적인 평가 방법이 갖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와 지방교육청도 수행평가의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인식하고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

1) 수행평가(performance assessment)는 전통적인 선다형 검사에 의한 평가와 구분된다는 점에서 대안적 평가(alternative assesment), 수행과제들이 실제 실생활의 문제들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참평가(authentic assessment), 학생들의 능력과 기술에 대한 증거를 관찰이나 면접에 의해 직접적인 측정치로 확보한다는 점에서 직접평가(direct assessment), 장기간에 걸쳐 학생들의 자기 평가를 중요한 판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포트폴리오 평가(portfolio assessment)로 사용되기도 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이다.

초등학생들의 글쓰기는 여러 종류별로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다. 그림일기를 포함한 일기 쓰기와 편지 쓰기는 물론이고, 글씨 바르게 쓰기, 자기 소개하는 글쓰기, 설명하는 글쓰기, '겪은 일 쓰기', 여행을 한 느낌 쓰기, 동시 쓰기 등이 있다. 이런 여러 종류의 글쓰기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학년간의 차이가 있다. 즉 전 학년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고학년에는 가능하나 저학년에 실시하기에는 무리인 것도 있다. 예를 들면 글씨 바르게 쓰기는 전학년에 걸쳐 다 실시할 수 있으나, 주장하는 글쓰기는 1학년에 실시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같은 저학년 중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림일기는 2학년 때보다 1학년 때가 적합하다.

Ⅱ. 교육과정에서 '겪은 일 쓰기'의 자리

수행평가의 문항과 교육과정과의 관계가 깊을수록 그 문항의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수행평가 문항이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서 볼 수 없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보다는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명시된 분야이고, 교과서를 배우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라면 더 바람직하게 생각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 나라에서처럼 교육과정을 금과옥조로, 교과서를 성전처럼 생각하고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수행평가 모델이나 문항은 외면당할 것이다. 따라서 맞춤양복처럼 현행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꼭 맞는 수행평가 문항이 이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과 수행평가 문항의 일치가 훌륭한 수행평가 문항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모두 8차례가 있었다. 교수요목(1946), 제1차 교육과정(1955), 제2차 교육과정(1963), 제3차 교육과정(1973), 제4차 교육과정(1981), 제5차 교육과정(1987), 제6차 교육과정(1992), 제7차 교육과정(1997)이 그것이다. 즉 미군정 시행 당시 교육과정인 교수요목에서부터 제 7차 교육과정까지 모두 8차례의 교육과정이 있었고, 기간은 10년~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5년만에 바뀌어 온 셈이다. 제5차 이후에는 5년 간격으로 바뀌고 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 수행평가의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보급하는 데는 적어도 5년 이상이 걸린다(Patrick Griffin 외, 1995, Preface). 그렇다면 교육과정이 바뀌자마자 수행평가 문항을 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용하고 전 학교에 보급할 때쯤이면 이미 새로운 교육과정이 등장하고 난 뒤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시행중인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문항을 개발하려면 수행평가의 문항은 속성(速成)으로 개발되고, 충분한 검증 없이 투입되어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에 꼭 맞는 수행평가 문항은 이미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문항개발이 자칫 중복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과서에서 제시된 수행평가 문항이 지나치게 세부적이면서 미시적이라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문항개발이 요구된다 하겠다. 여기서 거시적이란 말은 수행평가의 문항이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적용할 수 있는 보다 미래지향적이면서 포괄적인 체계속에서 도출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럴 경우 일선 현장의 교과서나 교육과정을 중시하는 교육자들로부터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진정으로 수행평가의 실시 이유와 취지를 잘 알려준다면 그런 것은 개선될 것이다.

제 6차 교육과정에는 글씨 쓰기와 문장부호 쓰기는 1학년부터, '겪은 일 쓰기'는 2학년부터, 편지쓰기와 설명하는 글쓰기는 3학년부터, 소개하는 글쓰기는 4학년부터, 주장하는 글쓰기는 5학년부터 지도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겪은 일 쓰기'는 전 학년에 걸쳐서 학생들의 쓰기를 바라보고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글의 종류이다.[2] 6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쓰기에 대한 학년별 내용 중에는 '겪은 일 쓰기'가 2, 3, 4 학년에 집중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2) 제6차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2-16호)에 의하면 국어과 교육과정 학년별 내용란 중 2학년 쓰기 영역 (8)에는 "겪은 일을 글로 쓰려는 태도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겪은 일 쓰기'는 꼭 2학년부터 시작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교육과정에는 1학년 때 겪은 일을 쓰라는 어떤 언급도 없지만 1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 15단원의 쓰기 학습 목표가 "겪은 일을 글로 쓸 수 있다."이다. 또한 1학년 때부터 지도하는 그림일기나 일기 쓰기도 '겪은 일 쓰기'에 다름 아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점은 특기할 만하다. 따라서 '겪은 일 쓰기'의 자리는 거의 전 학년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아마 모든 시기에 다른 글의 종류에 비해 소재가 폭넓고 쓰기에 편한 '겪은 일 쓰기'의 경험을 많이 해야한다는 뜻일 것이다. '겪은 일 쓰기'는 생활문을 적는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종류이다. 글쓰기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생활문에서 비롯된다. 아동들이 솔직하고 진실한 글을 쓸 수 있고 그것이 삶을 가꾸어 가는 데 활용될 수 있다면 이런 유형의 글쓰기는 필수적이고, 따라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준거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겪은 일 쓰기' 평가준거의 마련

전통적인 글쓰기에 대한 평가는 주로 교사의 직관에 따라 행해졌다. 어떤 교실에서든 글쓰기를 잘 하는 학생이 있다. 대개 그 학생은 각종 글짓기 대회에 나가 상을 받아오는 선수(?)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관행은 문제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이런 학생들이 모두 글을 잘 쓰는 학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또 다른 글쓰기를 잘하는 학생이 있다 해도 이를 선발할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글쓰기 대회에 나가지 못하는 다른 학생들의 글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학교에서 글쓰기 지도나 평가에 대한 준비와 실행이 전반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글쓰기 평가체계가 이론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탓을 들 수 있겠고, 또 학교 업무에 바빠 시간을 내어 글쓰기를 꼼꼼하게 읽어볼 시간이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 어떤 아이가 글쓰기를 하여 교사의 평가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글은 현재 어느 수준의 글이며, 어떤 점에서 잘 되었고 어떤 점에서는 더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평가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 또 그것을 토대로 더 잘 쓰려면 어떤 면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지도 교사로서의 견해가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글쓰기 지도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글쓰기의 평가준거를 마련하고 그것에 의해 평가하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는 것은 꼭 필요하고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면 이 여섯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하위 평가 관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 요소들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여섯 가지로 정해보았다. 즉 내용, 구성, 개성, 어휘선택, 문장구조, 맞춤법 및 태도가 그것이다. 맞춤법 및 태도는 한 항목으로 묶었는데 그것은 태도의 경우 측정하기가 어렵고 좋은 글을 쓰는 일과 무관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Ⅳ. 평가요소

글쓰기를 평가하기 위한 요소를 선정하는 일은 우선적으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수행평가의 경과가 의도했던 학생들의 특정한 능력이나 기능을 입증하는데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평가는 특정한 목적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수행평가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수집하는 방식들이 명료하게 제시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는 국어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하는 평가요소들은 다소의 실험성을 지닌다. 글쓰기를 평가 할 때 일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요소를 제시하면 '내용, 개성, 구성, 문장 구조, 어휘, 맞춤법 및 태도'가 그것이다. 이들 여섯 가지 평가요소에다 하위 요소를 설정하고자 한다.

1. 내용

'내용'은 글에서 가장 중요한 글의 주제와 소재를 말하다. 어떤 글이든 주제가 잘 드러나야 잘 쓴 글이다. 만약 주제가 모호하다면 그 글은 초점이 없는 글이 되고 만다. 즉 글의 내용은 주제를 향해야 한다.

그리고 글감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있다. 글의 바탕을 이루는 이야깃거리를 글감이라 한다. 좋은 글감이란 글쓴이만의 독특한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좋은 글감이 훌륭한 글을 보장할 수 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다음 글을 살펴보기로 하자.

> 지난 일요일 저녁 먹고 나서 TV를 보다가 "엄마, 아빠, 내 오학년 올라가고 하니깐 가방 사 죠." 하고 말했다. 엄마 아빠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또 다시 "어엄마, 아아빠, 가방 사 죠 으응." 졸랐다. 아빠는 "니 가방이 어때서." 했다. 나는 아빠에게 "자크도 잘 안 열리고 또 산 지 3년도 넘었잖아, 아빠아아." 칭얼칭얼대었다. 그러니 아빠는 "가시나가 돈만 까묵나. 저 가방이 어때서. 호가 똥 싸나, 맞을라고." 하며 뭐라 했다. 나는 입이 튀어나왔다. "나는 가방 꼬물 다 됐는데 그거 하나도 안 사 줄라카고……." 눈물이 핑그르 돌았다. 엄마는 "중학교 들어가마 사 주께, 알았제?" 했다. 나는 불평하듯이 입만 삐죽삐죽거렸다. 엄마는 "가시나가 맞을라고 저거는 가방 아니고 뭐꼬?" 똥두디기가? 맞을라꼬! 돈만 까쳐먹는다. 한 건 한 개도 없으면서." 하고 뭐라 했다. 아빠는 한 술 더 뜬다. "집에 못 쓰는 바뿌제(보자기) 없나? 바뿌제 있으면 가방 대신 쓰면 된다." 나는 눈물이 떨어졌다. "다른 아들은 설날이면 신발도 사 주고 한다던데 나는 낡아빠진 가방만 미고 다니라카고." 이렇게 말하고 나니 마음이 뭉클했다. 엄마는 내 동생 장난감을 나에게 던지면서 "어디서 눈까리 눈물 찔찔 짜노! 눈까리 콱 쑤시뿔라!" 나는 소리 없이 울면서 내 방으로 올려고 하니까 아빠는 자꾸 "바뿌제 없나. 옛날 너거 작은고모는 학교 못 각 담 넘어 학교 구구단 외우고 이랬다, 아냐! 근데 무 가방? 디질라고 환장했나!" 하며 뭐라 했다.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내 방에서 와 이불을 뒤집어썼다. 나는 "엄마 아빠는 내가 뭐 해 돌라고 하면 화부터 내고, 아빠 담배 한 보루 값이면 가방 사고도 남는다 뭐!" 하고 혼자 말했다. 나는 왕따가 된 기분이었다. "나중에 사 준다고, 오학년 올라가면 사 준다고 해놓고, 엄마는 거짓말쟁이." 이렇게 엄마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마음 따로 입 따로였다. 내가 조금만 거짓말을 해도 쥐잡듯이 잡으면서……. 나는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슬프고 힘도 안 나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나는 아무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
> -'가방 사 주세요' 전문, 4학년 여, 우리말과 삶을 가꾸는 글쓰기 제46호에서-

이 글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 부모'라는 주제를 나타낸 글이다. 아이들의 자존심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아이의 경험을 잘 살려 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글에서는 볼 수 없는 글이다. 즉 글쓴이의 경험과 생각이 담긴 목소리가 잘 나타나 있다. 글감도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된다. 특기할 만한 것은 사투리의 사용이다. 사투리는 초등 학교에서 되도록 표준말로 바꿔서 쓰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러나 가장 자연스러운 말은 역시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쓰고 스스럼없이 나오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투리 사용에 대한 가치를 따져봐야 하리라고 본다. 이 글의 지도한 청도 방지 초등학교 교사(이호철)의 경우는 글쓰기 지도를 할 때 사투리의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투리를 금기시 하기보다 상상의 날개를 펴는데 마음껏 활용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한다. 만약 이 글을 모두 표준말로 바꾸어서 읽어보면 그 맛이 매우 다를 것이다. 또 이것을 다시 영어로 번역하여 읽어보면 의미는 통할지 모르나 이 글의 속살을 맛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글의 내용에 들어갈 수 있는 평가 항목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글의 주제가 잘 드러난다.
- 좋은 글감을 사용한다.

2. 개성

개성이란 글쓴이가 아니면 쓸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즉 글쓴이의 목소리가 될 것이다. 모든 예술 작품, 특히 문학에서 글쓴이의 개성이 생명이듯이 글쓰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개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남들이 써 놓은 것, 신문이나 잡지에 난 것과 같은 비슷한 복사품이나 똑같은 모조품들은 그 글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된다. 그리고 글의 개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글쓴 사람의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나타내어야 한다. 특히 '겪은 일 쓰기' 지도에서 주의할 것은 착한 일 위주로 글을 쓰거나 어른들의 글을 흉내내거나 가공의 이야기를 꾸며서 만드는 글을 쓰지 않고 정직하게 쓴 글이 좋은 글임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과 삶이 아주 딴 것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즉 글쓰기 교육은 아이들을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키우는 데도 목적이 있다.

다음 글을 살펴보자.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시는 분들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생명의 은인으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어머니는 꾸중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왜 그랬던가 하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아야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
> 우리를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신 부모님을 평생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는 착한 사람이 됩시다.
>
> -'부모님 은혜' 전문, 6학년 여, 이오덕(1999:114)에서 다시 인용함-

이 글에서 특별히 잘못된 것은 없다. 그러나 이 글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지는 못한다. 개성이나 삶 같은 것이 없는 글이다. 아동 자신의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니라 어른이나 담임 교사의 입장에서 쓴 글에 가깝다.

개성이 있는 글은 멋이 있고 생동감이 넘친다. 글에도 품격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다. 또한 참신하면서 모험정신이 들어 있는 글이 좋은 글이다. 즉 새롭고 남다른 글이 좋은 글이다. 이런 요소들을 평가한다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글쓴이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다.
- 멋과 생동감이 있다.
- 참신하고 모험 정신이 엿보인다.
-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나타낸다. .

3. 구성

어떤 글이나 말이 설득력을 갖거나 재미있게 느껴질 경우 대개 그 구성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요건이다. 글의 짜임은 글을 계획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개요를 작성하거나 마인드 맵을 사용할 수 있다. 글의 구성은 대개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단계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 단계나 네 단계로 나눌 수도 있으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나 대개 세 단계가 무난하다. 그리고는 내용을 적절하게 단락이나 문단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초등 학교의 경우 단락이란 말보다는 문단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구분하여 쓸 수 있다. 즉 몇 개의 단락이 모여 한 문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문단을 나눌 때 연결하는 말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내용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다음 작품을 살펴보자.

> 어제 수연이, 주희와 같이 가다 언주, 유준이를 만났다. 같이 놀기로 했는데, 엄마놀이를 하기로 했다.
> 구름사다리 곁에 있는 나무의 열매와 도토리를 식량으로 하고 나뭇잎을 쓸어모아 땔감으로 정했다. 그 덕분에 구름사다리 곁은 깔끔해졌다. 사람고기도 먹었는데, 흙을 빚어 떡은 떡인데 사람처럼 만들었다. 그것을 먹는 척하고 심심하여 시소를 탔다. 누가누가 무겁나 시합을 했다. 역시 주희, 유준이가 이겼다. 이번에는 미끄럼틀에서 펭귄발 뛰기를 했다. 나는 두 번씩이나 술래가 되었다.
> 시간가는 줄 모르고 놀고 있는데 벌써 노을이 지고 있었다. 수연이랑 나는 부리나케 뛰어갔다. 놀이가 끝나자 고프지도 않던 배가 고프기 시작했다. 너무 신나게 놀아 배가 고픈 것도 잊었나 보다. 엄마께 야단 맞을까 두려웠지만 또 하고 싶다.
> -'엄마놀이' 전문, 진주교대 부속초등 3학년 장주연-

이런 사항들을 평가요소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글은 3학년 아동의 글답게 천진스러움이 잘 나타나 있다. 아이들이 신나게 노는 장면이 그대로 묘사되고 있다. 이 글의 연결이 자연스럽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처음, 가운데, 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다. 문단도 내용과 형식에서 거의 일치하고 있다. 결국 글의 구성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될 것이다.

- 글을 계획하고 구성할 줄 안다.
- 내용을 적절하게 문단으로 나눈다.
- 연결하는 말을 적절히 사용하였으며 내용의 연결이 자연스럽다.
- 글을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누어 논리적으로 전개한다.

4. 어휘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그 사람이 가진 세계는 그 사람이 가진 어휘의 세계이다. 어휘는 주로 두 가지 측면이 평가의 대상이 된다. 하나는 어휘를 얼마나 정확한 것을 선택하였나이고, 다른 하나는 얼마나 풍부하고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였나이다. 글의 어떤 자리에 맞는 가장 알맞은 어휘가 있다. 글에 나타난 어휘가 적재적소에 있지 못하면 그 글은 부정확한 글이 되어 품격이 떨어진다. 또한 사용하는 어휘의 양이 빈약하다면 글이 초라해 보인다. 문장 속에 동일한 단어가 두 번 나오는 것은 풍부한 어휘 구사력이라고 볼 수 없다. 풍부하고 다양한 어휘구사력은 글쓴이를 신뢰하게 만들어 글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어휘를 구사하는 능력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3] 그러나 이 어휘의 이해와 구사능력은 개인차가 많고, 독서량 등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아동들의 작문을 통해 단계화할 수 있다. 어휘 구사력은 현학적이고 어려운 말을 잘 구사하는 것보다는 쉽고 정확한 말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글을 쓸 때나 읽을 때 사전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데 글쓰기 중 어휘를 발달시킨다는 측면에서 사전 활용의 습관화를 지도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평가의 대상이 되어도 무방하리라고 본다. 이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평가 관점을 적용할 수 있다.

- 정확한 어휘를 선택한다.
- 사용하는 어휘가 풍부하고 다양하다.
- 사전을 활용하면서 글을 쓴다.

5. 문장 구조

문장 구조는 앞의 어휘가 정확하고 다양성을 띄어야 하는 것과 같이 문장의 정확성과 다양성을 생각해봄직해서 나온 평가 항목이다. 그런데 이 문장 구조는 앞의 글의 구성과 다른 개념이다. 글의 구성이 내용적인 측면이 두드러진다면 문장 구조는 다분히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다. 또 글의 구성은

3) 나이에 따른 어휘 이해량과 사용량에 대한 논의는 김광해(1993, 57-59)를 참조할 것.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문장 구조는 문장 하나를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문장은 처음이 중요한데 일단 자연스러운 시작이 바람직하다. 또 구사하는 문장의 길이가 다양하고 변화가 있어야 좋은 작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똑 같거나 천편일률적인 문장의 형태를 보이는 것은 글을 읽는 사람을 식상하게 한다. 따라서 단문 위주의 문장보다는 중문이나 복문을 구사할 줄 학생의 문장 구조가 능력이 돋보인다고 하겠다.

> 운동회가 오니 좋았어요. 달리기, 큰공 굴리기, 소고춤 언니오빠, 디스코, 춤 등을 하니 재미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2학년이 제일 재미 있었어요. 청팀, 백팀으로 나누어 누가 이기나 했으니, 너무 재미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게임을 하실 때, 너무 재미있었어요 다하고 밥을 먹으니 너무 맛있었어요. 조금 남았을 때 전교다 춤을 춰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후략)
> - '운동회 때 있었던 일' 일부, 진주교대부속초등 2학년 -

위 작품은 2학년 학생의 글이라 비교적 단순한 문장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사용된 문장이 모두 '~었어요'로 끝나고 있고, '재미있었어요.'가 다섯 문장 중 네 문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문장의 구조나 사용하는 어휘가 다양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문장 구조에 대한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글을 시작하는 문장이 자연스럽다.
- 문장 길이가 다양하고 변화가 있다.
- 단문, 중문, 복문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다양한 문장구조를 보인다.

6. 맞춤법 · 태도

한글 맞춤법에 맞고 띄어쓰기가 잘 되며 문장 부호를 정확하게 쓴 글을 말한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글다듬기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아무리 내용이 좋은 글도 어법에 어긋나면 글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아동들은 자신이 구사하는 글은 띄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어쓰기를 비교적 정확하게 하는 편이다. 문장부호는 마침표인 온점이나 물음표 등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작은따옴표나 말줄임표, 괄호 등과 같이 점차 어려운 것으로 옮아갈 것이다. 글을 쓴 다음에 고쳐쓰기를 한다. 이 때 맞춤법을 점검한다. 태도로는 글쓰기에 즐겨 참여하고, 남이 글쓰는 데 방해를 안 하고, 자기 글쓴 작품을 잘 정리해 두는 것 등을 항목으로 정할 수 있다.[4)]

- 맞춤법에 맞게 쓴다.
- 띄어쓰기가 거의 정확하다.
- 문장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 고쳐쓰기를 한다.
- 글쓰기에 즐겨 참여한다.
- 남을 방해하지 않는다.
- 글쓴 작품에 애정을 갖고 모은다.

위의 글은 모든 글에 다 적용될 수 있는 항목들이다. 이를 그대로 글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삼아도 되겠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글의 종류에 따라 재구성하면 더 나은 평가 항목이 될 것이다. '겪은 일 쓰기'에 대한 수행평가는 위와 같은 평가요소를 어떻게 충족시키느냐로 결정된다. 물론 이런 평가요소 다소의 주관성을 갖는다. 글쓰기의 속성 자체가 완전히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겪은 일 쓰기'의 평가준거는 위의 여섯 항목을 각각 4단계로 나누어 보았다. 물론 글쓰기가 과연 단계가 있을까 하는 점도 생각해 봐야할 일이다. 바둑이나 무술의 등급과 같은 개념의 단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4) 그러나 이 태도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측면도 있고, 태도가 문제가 되더라도 글쓰기를 잘 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태도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글쓰기를 잘 못하는 아동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그렇게 강요할 항목은 아니라고 본다. 미국의 글쓰기 평가에서도 이 태도면에 대한 평가 항목은 없었다(Farr, R., & Tone, B. 1994 참조).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논의는 더 필요하다. 사실 사람이 쓴 글을 보고 이를 평가하여 단계화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무모하고 부질없는 짓일 수 있다. 또한 글쓰는 작업이야말로 고도의 정신적 기능이라 어떤 한계를 지워 단계화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만약 어떤 학생의 글을 평가할 때 어떤 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취가 이루어져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크게 앞서 있다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지 않다면 글쓰기 지도는 막연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면 단계는 있다고 봐야하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등급 부여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 다섯 단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 보다 적게 나눌 수도 있고 더 세분할 수도 있다. 아래 표는 평균적으로 1단계가 1~2학년, 2단계가 3~4학년, 3단계가 4학년, 4단계가 5~6학년 글쓰기 수준에 맞추어서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만들어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V. '겪은 일 쓰기'의 평가준거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구체적 평가준거(rubric)를 만들어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은 하나의 안(案)이다. 여기서 평가요소나 단계를 적절히 더하거나 뺄 수 있을 것이다. 이 평가준거는 지금까지 교육 현장 주변에서 무차별 쏟아지고 있는 지나치게 단순하고 교육과정 의존적인 체계와는 다른 것이다. 평가요소도 여섯 가지[5]이고 단계도 4단계로 보다 세분화되었다는 특징이 있다.[6] 이 준거에 따라 평가를 한다면 비교적 객관적인 관점에서 아동들의 글을 단계화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면에서 글쓰기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

5) 여섯 가지지만 실제로는 맞춤법과 어휘가 겹치므로 엄격하게는 일곱가지 요소를 평가한다고 할 수 있다.

6) 이 논문의 완성단계에서 춘천교대 온 석사학위 논문을 받았는데 여기에 의하면 글쓰기 능력 평가 지침에서 생활문의 경우 평가 범주를 '내용', '조직', '표현'의 세 가지로 나누고 각 범주별로 4점부터 1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다. 평가 범주가 단순하고 학년별 연계성까지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논의들 중에서 필자의 견해와 가장 가까운 쓰기 평가준거이다. 이태기(2000: 81) 참조.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겪은 일 쓰기'의 평가준거>

단계 / 요소	4	3	2	1
내용	·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분명히 드러난다. · 글의 소재는 매우 인상깊은 것을 선택하였다.	· 표현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 인상깊은 소재를 선택하였다.	· 주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 소재가 평범하다.	· 무엇을 나타내려는지 알 수 없다. · 일정한 소재가 없다.
개성	· 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사람의 주의를 끈다. · 글쓴이의 목소리가 진하게 배어있다. · 멋과 생동감이 있다. · 꾸밈이 없고 진실하다.	· 주의를 많이 끄는 글이다. · 독창성이 엿보인다. · 솔직하게 나타내었다.	· 글에서 주는 재미가 별로 없는 글이다. · 글쓴이의 목소리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 글이다. · 꾸밈이 많은 글이다.	· 글이 산만하고 주의를 끌지 못한다. · 독창성을 찾을 수 없다.
구성	· 글의 계획과 구성이 돋보인다. · 내용을 적절하게 문단으로 나눈다. · 연결하는 낱말을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 글의 계획과 구성이 자연스럽다. · 문단으로 나누고 형식과 내용이 대체로 일치한다. · 연결하는 낱말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 문단구성이 부적절하다. · 연결하는 낱말 등이 부적절하다.	· 문단구성이 없다. · 연결하는 낱말을 사용하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어휘	· 어휘를 적재적소에 사용한다. · 풍부하고 다양한 어휘를 선택한다. · 사전을 활용하면서 글을 쓴다.	· 어휘의 사용이 정확하다. · 다양한 어휘들이 눈에 띈다.	· 어휘 선택이 부적절한 것이 눈에 띈다. · 사용한 어휘의 폭이 좁다. · 한 문장에 같은 어휘가 반복되는 것이 더러 있다.	· 선택한 어휘가 부적절하다. · 한정된 몇 개의 어휘만을 사용한다.
문장 구조	· 문장의 구조가 다양하다. · 글의 처음부터 끝까지 호감을 주는 리듬을 가지고 있다. · 문장의 길이가 다양하다.	· 문장 구조가 다양하다. · 문장구조가 호감을 준다. · 문장의 길이가 다양하다.	· 같은 유형의 문장이 반복되며 구조로 단조롭다. · 문장의 길이가 다양하지 못하다.	· 문장 구조가 매우 단순한 것으로 일관한다. · 문장의 길이가 짧은 것만 있다.
맞춤법 태도	· 낱말, 문장, 띄어쓰기에서 발생한 오류들이 눈에 거슬리지 않는다. · 글씨가 알기 쉽고 바르다. · 글쓰기에 즐겨 참여한다.	·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틀린 것이 별로 없다. · 글씨는 바른 편이다. · 글쓰기에 비교적 즐겨 참여한다.	· 맞춤법에 맞지 않은 것이 많고 띄어쓰기의 오류는 빈번하다. · 글쓰기에 관심이 적고 소극적으로 참여한다.	·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이 많아 글의 이해가 어렵다. · 글쓰기에 관심이 없고 태도는 남에게 방해가 된다.

VI. 수행평가 문항 작성의 실제

앞에서 작성한 평가준거를 적용하기 위한 쓰기 평가 문항을 만들 차례이다. 이 문항은 실제로 학습에 쓰일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다음에 나오는 문항지를 나누어주고 문항 지침을 사전에 알려주어 실제 글쓰기를 하면 된다. 수행평가는 전통적인 평가와는 달리 평가방법과 준거를 사전에 알려주는 평가이기 때문이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 ○ 초등학교

3학년 국어과 수행평가 문항 지침

1) 영역 : 쓰기('겪은 일 쓰기')

2) 목적 : '겪은 일 쓰기'에 대하여 학생들의 쓰기 능력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수준에 맞는 학습지도를 할 수 있다.

3) 목표 : 3학년에 올라와서 겪은 일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경험을 쓸 수 있다.

4) 관련단원 : <3-1> 15. 이런 일이 있었어요
<3-2> 15. 마무리를 잘 해요

5) 실행상 유의점

- 3학년이 되어 겪은 일 중 가장 인상적이고 기억에 오래 남을 일(기쁜 일, 슬픈 일, 보람있었던 일, 실망스러웠던 일, 마음이 아팠던 일 등)을 글감으로 하게 한다.
- '겪은 일 쓰기' 작품 중 잘된 작품을 사전에 소개한다.
- 즐겁게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글쓰기의 평가 관점을 사전에 간접적이고 부담 없도록 말해 준다.
-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잘 표현하도록 동기를 유발하게 한다.
- 1~2개의 글감을 사용하여 집중적으로 글을 쓰게 한다.
- 시간은 40분으로 하되 실제 글을 쓰는 시간은 30분 정도로 한다.

6) 준비물 : 평가지

7) 절차

-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 3학년에 올라와서 겪은 일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을 발표하게 한다.
- 글의 내용, 구성, 개성, 문장구조 등에 대해 간단하고 자연스럽게 말해 준다.
- 주제를 제시한다.
- 글의 개요를 작성하게 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 각자의 경험을 살펴 글을 쓰게 한다.
· 글을 다듬는 시간을 갖게 한다.
· 평가지를 거둔다.
·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평가자들간 준거의 적용 방안을 협의한다.
· 평가준거에 의해 하나하나 평가하고 학생 개별적으로 기록해 둔다.
· 목표 달성도를 참고로 격려나 피드백 등을 통해 쓰기 능력을 신장시킨다.
· 학생들의 평가지는 포트폴리오에 저장한다.

수행평가 문항

* 3학년에 올라와서 겪은 일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차근차근 써 봅시다. .

3학년 ( )반 이름( )

이 하 생 략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Ⅶ. 수행평가의 실제

이젠 위에서 제시된 평가준거를 바탕으로 실제의 글에 적용해서 평가해 보기로 한다. '겪은 일 쓰기'는 전 학년에 걸쳐 실시할 수 있는, 글쓰기에서 가장 적합한 글의 종류 중 하나이다. 현행 교과서에는 3학년 1학기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1학년이나 2학년의 경우에도 그림 일기나 일기를 쓰면서, 혹은 국어 쓰기 시간에 짧은 글을 쓰면서 '겪은 일 쓰기'를 많이 하고 있다. 여기서는 1학년, 3학년, 5학년의 작품을 보고 단계를 구분해 보기로 하겠다.

> 나는 가을운동회가 기억이 난다. 우리 엄마와 이모, 동생이 왔었는데 점심이 아주 맛 있었다. 통닥, 김밥, 물, 요쿠루트, 과자였었는데 갑자기 먹고 싶어서 침이 흘러 나왔다. 그리고 가을운동회에는 1학년이 달리기, 높이높이던져라, 모자가 너무길어서를 했고 꼭두각시도 하였는데 그중에서 밥먹는게 가장 좋았다. 이유는 밥이 맛있었기 때문이다 가을운동회가 기억에 가장 많이나고 재미가 있었던 날이다.
> -학교에 들어와서 겪은 일, 부속초등 1학년 박시은-

이 글은 아동이 겪은 글쓰기를 그대로 옮겨 적었다. 1학년이지만 글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이 글에서 인상깊은 일은 가을 운동회 때 먹은 음식과 밥이다. 놀이보다는 먹는 것이 가장 좋았다는 표현이 눈에 띈다. 매우 솔직하고 천진스런 작품이다. "~갑자기 먹고 싶어서 침이 흘러 나왔다."는 표현이 뒤에 나온 "~밥먹는게 가장 좋았다."란 문장과 호응하여 이 글을 이끄는 중심내용이 되고 있다. 이 글을 앞의 여섯 가지 평가준거에 맞추어 단계화해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내용면에서 표현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글의 소재는 인상깊은 것이다. 또한 개성면에서 꾸밈이 없고 주의를 많이 끄는 글이다. 구성은 문단구성이 없고, 어휘는 사용한 어휘의 폭이 좁은 편이다. 문장구조는 구조와 길이가 다양하다. 맞춤법 및 태도면에서는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이 없고 띄어쓰기의 오류가 많다. 여기에 해당하는 단계는 내용 3, 개성 3, 구성 1, 어휘 2, 문장구조 3, 맞춤법 및 태도 2단계로 평가할 수 있다. 초등 학교 1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학년 작품은 대체로 1~2단계일 것인데 이 작품은 내용, 개성, 문장구조에서 3단계에 도달했으므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저는 3학년을 올라와서 박용일이와 같은반이 되어서 좋습니다. 용일이는 나랑재일 친하지요 용일이와 나는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갖이빌리 기도하지요. 그래도 용일이 덕에 갖이 않고싶어요 왜냐하면 공부시간에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잔아요. 조금만있으면 크리스마스데 용일이에게 편지를 써서 데욱데 사이좋게 지내면아주 좋지요 그리고 용일이는 내생일데와 주었는데 나는 못가주어 서미않안 생각도들어요 또용일이가 우리 집에 놀러오는데 나는1번만 가봐서 조금미않한생각이들고 이재부터는 더욱더사이좋게지낼래요!
> -'같은 반' 전문, 부속초등 3학년 남-

이 글은 내용은 소재는 평범한 곳에서 찾았지만 동무와의 우정을 나름대로 잘 나타내려고 애쓴 글로서 내용은 2.5단계에 속한다.[7] 글이 군더더기가 없고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개성은 3단계로 평가한다. 그런데 문단을 만들지도 않았고 그런 의식이 없는 듯 해서 구성면에서는 1단계로 본다. 사용한 어휘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라 어휘면에서는 2단계로 평가한다. 문장구조도 단순하기에 2단계가 될 것이다. 맞춤법은 틀린 곳이 매우 많아서 1.5로 단계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 틀리거나 빠뜨린 낱말을 보면 재일→제일, 갖이→같이, 않고싶어요→앉고 싶어요, 되잔아요→되잖아요, 크리스마스데→크리스마스인데, 데욱데→더욱더, 내생일데→내 생일 때, 미않한→미안한 등 빈번하다.

또한 띄어쓰기가 안된 곳도 더러 눈에 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 글을 이해하는데 크게 방해가 되지는 않고 있다.

> 같은반→같은 반, 나랑재일→나랑 제일, 갖이빌리 기도하지요→같이 빌리기도 하지요, 지내면아주좋지요→지내면아주 좋지요, 내생일데와→내 생일 때와, 못가주어 서미않안 생각도들어요→못 가주어서 미안한 생각도 들어요., 또용일이가→또 용일이가, 조금미않한생각이들고→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고, 더욱더사이좋게지낼래요!→더욱더

7) 2단계와 3단계의 중간쯤 속하는 단계를 2.5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단계 규명은 평가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사이좋게 지낼래요!

다음 작품을 살펴보기로 하자.

> 우리 아빠는 국일탕 밑으로 가는 길에 트럭을 세워 두고 그 안에 과일을 진열해 놓고 파는 과일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하루도 쉬지 않고 오후 4시에 나가 밤 11시까지 과일을 팔다 들어옵니다. 우리 아빠는 비가 많이 와서 장사를 못 할 때 하루라도 더 팔아야 할 텐데 생각하며 일부로 우리가 있을 때 즐거운 얼굴이면서 나가면 걱정하는 모습이 됩니다. 우리 아빠는 우리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서 이 장사를 하셨나 봅니다.
> 오늘 내가 엄마 심부름으로 아빠 장사하는 곳에 가 보니 장사는 별로 되지 않고 비가 와서 수퍼에 앉아 장사를 보던 우리 아빠, 이젠 장사가 잘 되어 걱정하는 모습이 아닌 즐거운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는 밤 늦게 장사하다 오셔서 힘든지 어저께는 씻고 방에 들어가 곧바로 누워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이 너무 슬펐습니다. 다른 아빠는 근사하게 옷을 차려 입고 출퇴근하는 것이 멋있어 보였는데 우리 아빠는 그냥 바지에다 티셔츠를 입었는 것이 슬펐습니다.
> 나는 아빠를 대신하여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큰 집에다가 아빠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 -'우리 아빠가 하시는 일', 5학년 안준영, 우리 말과 삶을 가꾸는 글쓰기 제52호에서-

이 글은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글이다. 아버지가 과일장사를 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잘 나타내었다. 아버지의 표정 하나하나까지 잘 살펴서 힘든 일을 하는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이 글을 평가해보면 내용면에서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아들의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분명히 드러나고, 소재도 인상깊은 것을 선택하였다고 생각되어 4단계를, 개성면에서도 읽는 사람의 주의를 많이 끌고 있으며 매우 솔직하게 나타내었기에 4단계를 부여할 수 있다. 구성면에서는 문단의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3단계를, 어휘면에서는 어휘의 사용이 비교적 정확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3단계를, 문장구조면에서는 문장의 길이와 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3단계를, 맞춤법에서도 4단계로 평가할 수 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Ⅷ. 결론

초등학교에서 글쓰기 영역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여기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겪은 일 쓰기'를 중심으로 수행평가 방안을 모색하였다. 글쓰기 분야에서의 수행평가 문항과 평가준거의 제시는 교육과정과 연계되면 좋겠지만 반드시 일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과정은 몇 년마다 바뀌지만 수행평가 문항을 개발하고 이를 평가준거에 의거하여 단계화하는 작업은 그 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학생들의 글쓰기를 단계화할 수 있느냐라는 회의론이 있지만 그렇다고 순수 직관에 의해 우수한 글과 열등한 글을 가려낼 수는 없는 일이다.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 요소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겪은 일 쓰기'의 경우 평가요소는 여섯 가지로 정할 수 있었다. 즉 '내용', '개성', '구성', '어휘', '문장구조', '맞춤법·태도'이다. '내용'은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주제와 글감을 선택하는 것이다. '개성'은 글쓴이의 목소리가 담긴 솔직하게 썼느냐를 평가한다. '구성'은 문단을 나누고 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고, '어휘'는 사용한 어휘가 정확하고 풍부한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문장구조'는 문장의 다양성을, '맞춤법 및 태도'는 맞춤법이나 문장부호 등 어법에 맞게 쓴 글과 글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를 평가하는 일이다.

이런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단계화 할 수 있는데 이 단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밀한 평가가 이루어지겠지만 평가자의 편의도 고려해야 하므로 4단계가 바람직하다. 즉 1단계가 1~2학년, 2단계가 3~4학년, 3단계가 4학년, 4단계가 5~6학년 수준이 될 것이다. 이 평가준거에 맞추어 평가 결과가 나오면 학생들의 글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글쓰기 능력이 저학년이면서도 고학년의 수준에 이른 사람도 있을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1학년, 3학년, 5학년의 글을 소개하고 이를 평가준거에 의거에 평가해봤는데 학년의 차이보다는 개인의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다. 글쓰기에 대한 이런 수행평가 체계가 학교 현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참 고 문 헌

곽재용(2000), 국어과 '쓰기' 수행평가의 준거와 실제, 초등교육연구 제10집, 진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교육부(2000), 국어 쓰기 1-1, 대한 교과서 주식 회사.

교육부(2000), 국어 쓰기 2-1, 대한 교과서 주식 회사.

교육부(2000),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국어 1-1, 대한 교과서 주식 회사.

교육부(2000),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국어 2-1, 대한 교과서 주식 회사.

교육부(2000),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국어 3-1, 실험용, 대한 교과서 주식 회사.

교육부(2000),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국어 4-1, 실험용, 대한 교과서 주식 회사.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석문주 외 7인 공저(2000), 학습을 위한 수행평가, 교육과학사.

성정일(1999), 어린이 글쓰기와 독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나, 시서례.

열린학습 수행평가 6-1(2000), 우리아이.

이오덕(1999), 글쓰기 어떻게 가르칠까, 보리.

이재복(1999), 우리 동화 바로 읽기, 한길사.

이태기(2000), 협의하기 활동이 글쓰기 능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 연구, 춘천교대 대학원 석사논문.

정종진(1999), 수행평가의 본질과 방향, 99년 열린교육 춘계세미나, 대구열린교육연구회.

조한무(2000), 수행평가를 위한 포트폴리오 평가, 교육과학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1999), 고등학교 국어과 수행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1993), 글쓰기교육의 이론과 실제, 온누리.

한국글쓰기연구회(1999ㄱ), 우리말과 삶을 가꾸는 글쓰기, 제46호.

한국글쓰기연구회(1999ㄴ), 우리말과 삶을 가꾸는 글쓰기 제57호.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한국수행평가연구회편저(1999), 수행평가 핸드북, 고려출판.
한국초등교육평가연구회(1997), 수행평가 이렇게 합시다, 교학사.

Abbamont, G. (1999), 미국 New Jersey, South Brunswick The Constable School 읽기: 쓰기 포트폴리오, 미간행.

Cole, Donna J., Charles W, Ryan, Frank Kick,(1995), Corwin Press Inc.

Farr, R., & Tone, B.(1994). *Portfolio and performance assessment.* NY:Harcourt.

Lehn. T. (1999), 미국 New Jersey, South Orange Marshell School, 언어 교육과정 자료, 미간행.

Patrick Griffin, Patricia G. Smith, Lois E. Burrill(1995), *The American Literacy Profile Scales*, Heinmann, Australia.

Shackelfold, R. J., Carter(1996), *Student Portfolios* : A process/product learning and assessment strategy, The Technology Teacher, 55(8).

Wiggins, G., (1988), *Educative assessment designing assessments to inform and improve student performance,* San Francisco: Jossey-bass.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